

# 북한 방송통신 현황에 따른 통일방송의 역할제고 방안

박은경\*

Improving the Role of Unification Media according to the status of broadcasting in North Korea

Eun-Kyung Park\*

## 요 약

지난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주민들의 정보욕구가 매우 강하며, 당 간부들 역시도 대북방송을 청취하고, 남한의 드라마를 즐겨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였다. 방송통신부문은 남북의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접촉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의 도구로서 방송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일대비 방송을 통한 협력방안을 기술하였다.

## ABSTRACT

On July 6, 2017, President Moon Jae - in attended the Hamburg G20 Summit in Hamburg, Germany, and presented the basic directions for North Korea policy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Peace Initiative. In this paper, the Information needs of North Koreans are very strong, and the party Officials also listened to the fact that they listened to the North Korean broadcasting and watched the drama of South Korea.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aimed at enhancing the role of broadcasting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physical contact can be excluded even in the presence of distrust of the North and the South. Therefore, it describes the cooperation plan through broadcasting against unification.

## 키워드

North Korea, Broadcasting Communication, Unification,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북한, 방송 통신, 남북 교류 협력, 통일

## 1. 서 론

북한에는 두 개의 당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는 ‘장마당’이다. 장마당을 통해 북한은 전반적으로 시장화 되어 1980년대 중국의 시장화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북한정권에서 원하지 않는 사회적 변혁이지만

장마당을 통해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에 진입하였고, 권력과 시장이 결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정보의 유통은 불가피하여 한국의 대중문화와 정보가 장마당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특히 ‘장마당세대’라 불리는 북한의 1980~1990년대에 태어난 20~30대 청년들은 북한 인구의 약 25%를 차지한다[1]. 이들은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 교신저자 : 동양대학교 철도전기융합학과

• 접수일 : 2017. 10. 10  
• 수정완료일 : 2017. 11. 12  
• 게재확정일 : 2017. 12. 15

• Received : Oct 10, 2017, Revised : Nov 12, 2017, Accepted : Dec 15, 2017

• Corresponding Author : Eun-Kyung Park  
Dept. of Electric Railway Convergence Science, Dongyang University  
Email : rupek2014@dju.ac.kr

하면서 정부에 대한 소속감이 낮아지는 반면 시장 친화적이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밀반입된 한국방송을 즐겨보고 있어 한국사회에도 상당히 익숙한 편이다.

이러한 장마당 세대가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젊은 통일의 발판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이 북한 내부의 정보자유화를 위한 일환으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10년 이상 송출하는 부분도 북한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각종 정보들이 북한 주민에게 유통되는 통로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올해에만 8번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로 인해 북·미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실질적인 남북관계 역시 불통으로 꽁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제 소통을 넘어 진정한 통일을 준비할 시점에서 사회적 과급효과가 큰 방송통신은 통일을 준비하는 확실한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차원에서 남북의 분단극복과 민족동질감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1990년대 이후 디지털시대가 시작되면서 방송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통일방송시대를 대비한 방송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에 장마당 세대들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체제변화를 이끌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정보의 질과 효율성에 대해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사회적,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적 방안으로 먼저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현황을 검토하고 통일방송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주민들을 위한 방송의 역할 제고방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 II. 북한의 방송통신

### 2.1 북한 방송의 체계와 역할

1984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펴낸 「백과전서」에는 ‘방송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당의 위력 있는 사상적 무기, 전파 또는 선로수단에 의거하여 말, 음악, 음향과 영상

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사회현실을 알려주고 일정한 선전 목적을 실현하는 보도선전 및 사상 문화 교양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방송은 유일체제를 강화시키는 수단과 함께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3대 기능으로 ①이데올로기 무장을 위한 선전·선동기능 ②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조직·동원의 기능 ③공산주의形 인간을 양성하는 문화·교양의 기능으로 요약된다[2].

또한 북한의 방송은 조선노동당의 가장 유력한 선전 선동 매체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는 도구이며 방송정책 역시 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매시간 효과적으로 반복 선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관련 조직은 조선노동당과 내각의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 내부의 모든 방송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표면적으로 내각 문화성의 하부기관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의 지휘·통제·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방송시설 운영은 내각의 체신성이 담당하고 있는데[4]이는 북한이 ‘통신’이라는 용어 대신 ‘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노동당 산하의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전부는 방송의 내용과 편성업무를 관장하며, 방송국과 각 방송위원회 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방송과를 통해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대남방송에 대해서는 통일선전부가 관여하고 있다.

내각 체신성의 주요업무는 체신정책 수립 및 집행지휘 감독기구, 각종 우편물 배포업무를 관장하고 전신전화 시설계획과 설비관리, 무선전파 통제 및 감시감독,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통신업무 관장 및 정책수립, 우편분야의 시·군별 체신소마다 우편 통신용 자동차와 수송장비를 확충하는 것이다[3].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선전의 조직 및 진행에 관련된 기관으로 방송 선전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송기관이다. 방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집행·총괄하는 부서로서 방송을 송출하는 각 방송국을 관장하고 있다. <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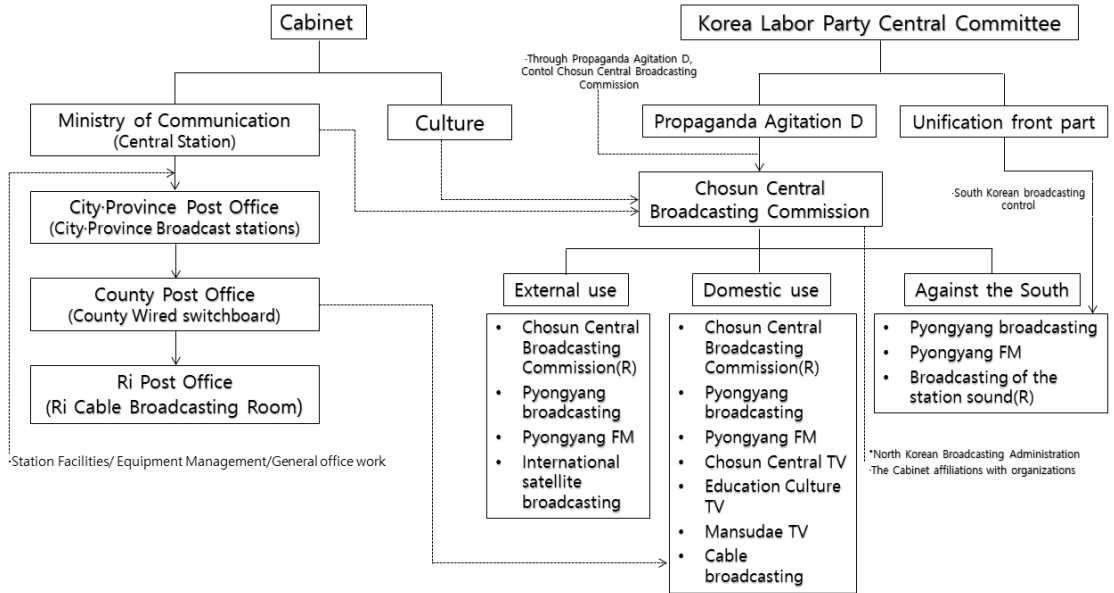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의 방송체계 조직도  
Fig. 1 Organization of N. Korea broadcast system

방송위원회위원장과 간부들은 내각에 속해 있지만,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함은 물론 방송요원 모두가 당원 및 국가 관리들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모든 방송 내용은 당의 사전검열을 받으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전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2.2 TV 방송

북한 주민들은 열악한 수상기 보급과 전력난으로 인해 텔레비전을 통한 정보 획득에 제약이 많으며, 수상기의 보급률이 낮은 것은 열악한 경제수준과 정부의 정치적인 통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과 방송 채널은 조선중앙TV, 만수대TV, 교육문화TV가 북한 내에 PAL(Phase Alternation Line) 방식으로 방송되며, 개성TV는 대남선전용TV 방송으로 한국과 같은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방식으로 방송되고 있다. 교육문화TV는 2012년 룡남산TV로 개칭되어 주말에만 방송하고 평양시민들만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2015년에 평양시내에 설치된 케이블 TV 역시도 평양시민만 시청이

가능하다[2].

조선중앙TV 방송시간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전력부족이 심각해 TV시청시간은 하루에 2~3시간에 불과하며 2012년 한국이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로의 전환을 끝낸 반면 북한에서는 2012년부터 자체 디지털TV 실험방송을 시행하고, 현재는 북한의 주파수 대역에 맞는 유럽방식(DVB-T)을 사용하고 있다[3].

표 1. 북한의 지상파 TV방송 현황  
Table 1. Status of terrestrial TV broadcasting in North Korea

Division	Chosun Central TV	Mansudae TV	Chosun Education Culture TV	Kaesong TV*	Yoo Kyung Cable
Broadcasting coverage	Nationwide	Region	Region	Anti-ROK broadcasting	Pyongyang
Audience audience	North Koreans	Pyongyang residents, Foreigner	North Koreans		citizen
Transmission mode	PAL	PAL	PAL	NTSC	
Year of establishment	1963	1973	1997	1971	2015

남북한 방송체제를 간단히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남북한 방송체제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broadcasting between S. N Korea

Division		South Korea	North Korea
Proprietary system		National, public, private	State ownership
The role of broadcasting		he satisfaction of public sentiment and desire for entertainment	A propoganda, agitation, and organization
Commencement of broadcasting	Radio	1927, Kyungsung Broadcasting Corporation	1945, Chosun Central Station,
	TV	1967, KORCAD-TV	1969, Pyongyang TV
	Color TV	1980	1974
	New Media Broadcasting	Cable 1995, Satellite broadcasting 2001, IPIV 2008	Not implemented
Television viewing rate		98%	A low estimate
Media station status	Radio	Scores of KBS, etc	Chosun Central Broadcasting, etc. 5
	TV	Nationwide : 4 including KBS Province : KBS, MBC, Local private broadcasting etc	Chosun Centri TV, etc. 4
Foreign broadcasting language number		Thirteen	Nine
TV System		Digital ATSC method	Analog PAL method

### 2.3 라디오 방송

라디오방송은 대남선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대내 방송은 유선라디오방송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을 제외한 모든 라디오방송이 대남·대외 선전 방송의 성격을 가지며, 농어촌지역에는 유선라디오방송이 일반화되어 있는 등 주민들은 24시간 라디오 선동에 노출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라디오총국 제3방송 편집국에서 제작되며, 교양 및 체제의 유지수단으로 사용되어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유선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로 유선 중계하는 방식이다.

지역방송은 각 도당위원회 선전부 관할로 송신소 17개, 중계소 20개, 지방 10개소의 시도 유선방송국과 200개 군·구역 방송국이 있고 1958년에 시작한 열차방송을 포함한 4,300여 개의 방송실이 있다. 유선으로 연결되어 북한 주민만 청취가 가능하므로 전체 주민들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주민사상교양에서 절대적 영향력 발휘하고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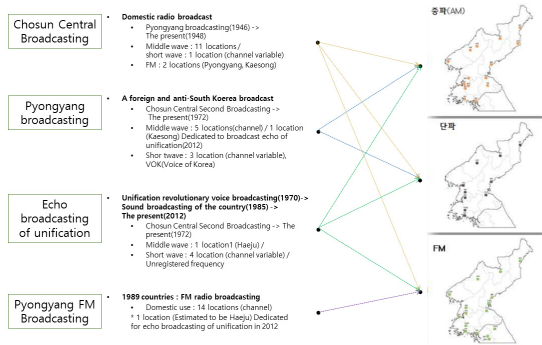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라디오방송 운영 현황  
Fig. 2 Status of Radio Broadcasting in N. Korea

### 2.4 뉴미디어 방송

북한 유선라디오방송의 전국적인 망 구축은 완벽할 정도이지만 유선TV방송(케이블TV)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성방송은 1998년 7월 2일부터 태국의 광대역 위성인 타이콤3호의 중계기를 임차하여 126개국과의 송수신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위성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성방송을 임차한 목적이 ① 평양과 지역을 연결하는 TV중계시설(마이크로 웨이브시설)의 노후화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투자비용이 저렴한 위성방송으로 대체한 것이며 ② 타이콤 위성이 세계 126개국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북한 방송을 송출하여 체제선전 등의 대외 홍보 효과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4].

## III. 통일방송을 위한 해외사례 검토

### 3.1 통일독일의 사례를 통한 방송의 역할

과거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분단 극복과 통일에 방송미디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통일 이전 동서독은 한반도와 달리 지정학적으로 전파월경이 가능했으며, 이것이 독일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집단 Communication의 유일한 통로로 가능할 수 있었다.

동서독 관계에서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로 이는 서독 사민당(SPD)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총리가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면서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3].

1945년~1970년대는 동서독이 방송수신을 제한한 시기였으나, 결론적으로 동독은 서독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을 금지하는데 실패하였고, 침묵과 묵인 속에 동독주민들은 서독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서독 방송매체 수신행위가 동독에서 엄격하게 처벌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독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동서독의 현실과 사회, 문화를 소통하게 하였고, 동서독에 있는 독일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며 독일통일을 촉진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당시 서독방송의 통일에 대한 중요한 기여는 동서독 통일을 의식하지 않고 원칙적이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한 언론의 정도를 밝아온 것이 역사적으로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5].

### 3.2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통한 방송의 역할

중국과 대만의 방송역할과 기능변화는 1978년 중국 덩샤오핑의 개혁정치가 시작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언론정책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언론개혁이 사회개혁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의 변동이 언론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역할(정치적·이데올로기적 수단)에 치중해왔던 언론매체를 경제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켜 '경제건설의 도구', '경제교육의 도구' 등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덩샤오핑의 개혁정치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해 중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었기에 언론의 경제적 기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언론이 당의 지도노선과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선전자, 선동자, 교양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 언론매체와의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과 방법을 확보해야 했다[5]. 한편 방송채널 급증에 따른 프로그램 부족문제를 외국프로그램 수입과 직접적인 위성방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언어가 유사한 홍콩과 대만의 급속한 문화유입에 따른 체제불안 위협문제가 발생하였다. 위험 방지를 위해 1994년 위성방송 통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반면에 대만은 1987년 중국 방문을 전격적으로 허용하면서 양안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대만 민간 매체의 독자 수요층 증가로 인해 취재와 방송프로그램의 대만 내 방영관련 제한 등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켰다[5]. 대만의 중국 언론매체 종사자에 대한 대만 내 여행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대부분 형식적 규제로 완화하는 등 매체교류협력정책의 특징이 개방의 목적과 개방을 위한 제한으로 변화되었다.

대만과 중국은 정치적 대립관계였음에도 홍콩이라는 중간 지역을 활용하여 자존심을 지키면서 교류도 허용할 수 있었으며, 1997년 홍콩 반환이 이루어진 이후 직접적인 쌍방교류가 급속히 확산되어 방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 IV. 통일방송을 위한 역할과 교류

### 4.1 통일방송을 위한 선결과제

독일통합과정에서 동서독 정보격차가 야기한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남북한 과학기술의 응용분야인 방송, 통신, 전파법 관련 부분은 단계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북한 전파관리법, 체신법 등 전파 관련 법제는 통일 관련 제도 및 산업 전반을 고려할 때 [6]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방송의 목적이 선전에 맞춰져 있고 출판보도물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폐지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어 남한 전파법을 가지고 북한지역에 확대 적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서비스와 시청자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7].

또한 현재 기준의 남북한 정보격차, 방송통신 인프라, 전파 무선국 관련 기지국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북한지역 전파 관련 분야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남북 양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사회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의 중요한 의식이 선결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제공되어 사회·문화적 이해와 공동의식 형성에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2 통일방송의 역할과 위상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저가 중국산 디지털기기의 불법적 보급으로 북한주민의 정보 활용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남한의 대중매체 중 방송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활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매체가 되었다. 또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여전히 국민의 통일의식 및 태도 제고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방송임을 감안할 때, 분단극복과 통일에 대한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질화를 극복하고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통일 전 서독의 방송이념에 주목해야 한다.

서독의 경우 제2공영방송사인 「ZDF설립법」과 프로그래밍 정관에 독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자유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 이에 반해 우리의 방송법에는 통일과 관련된 방송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방송법에도 서독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방송의 위상을 높여 역할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긴장과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분단의 지속이나 통일로 나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방송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여론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 하에서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방송의 역할을 공익적 가치로 두고 통일방송의 실천양상을 다양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

### 4.3 통일방송을 위한 간접교류방안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더니 올해에는 370만을 육박하였다. 이는 핸드폰으로 인한 정보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는 정보의 제한, 이동제한이 있었으나 핸드폰으로 정보의 확산속도가 빨라지면서 체제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핸드폰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영상서비스로 네트워크의 중요성보다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9].

Changes in Number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in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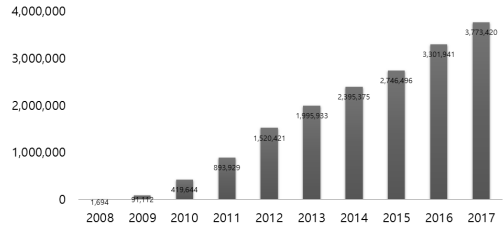


그림 3. 북한 이동전화 가입자 변화추이  
Fig. 3 Changes in N. Korean mobile phone subscribers

이러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드라마, 영화, 가요를 접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남한 연예인들의 옷차림, 헤어스타일까지 경쟁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대중문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12] 과거 평양, 신의주, 청진 등 일부 대도시와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만 유행하던 '남조선 바람'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내에 가장 빠르게 유포된 것은 영상물과 가요로 중국으로부터 중고 컴퓨터와 저가의 DVD 플레이어가 유입되어 웬만한 가정에는 쉽게 남한의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다. 이제 이동전화 보급이 확산되면서 남한의 대중문화를 이동전화로 즐기게 될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굳이 북한에 직접교류를 통한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한반도 인접지역인 중국 압록강 및 두만강유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관련 방송 콘텐츠를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각종 교양 강좌 및 방송통신 관련 기술 강좌를 방송하는 EB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배움 나라 등에서 방영하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한반도 인접 지역에 널리 전파하여 북한의 동포들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민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등 정보화교육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11]. 이러한 우수한 교육콘텐츠에 대해서 북한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상방송 사업자들에게 다채널 서

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시청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방송사들은 콘텐츠 제작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 V. 결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으로 당분간은 남북간 정보교류나 기술통합 등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교류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민간차원의 정보교류는 지속되어야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최근 국민통일방송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쿠바의 독립매체인 ‘쿠바넷’의 라파엘 두발 기술연구소장의 주장을 주목하고자 한다. 1990년대 쿠바는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오프라인 왕국이었으며 당시 언론의 행동과 활동에 대해 당국의 압박이 심하여 인터넷을 차단하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주민 간에 정보가 공유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험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창의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쿠바에서 이용한 인터넷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북한 당국자에게 추적되지 않으면서 복제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이트가 북한에 제공된다면 북한주민들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다양한 교류방안을 토대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송은 휴대폰을 이용한 방송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북측에서 이동전화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남측은 방송과 통신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융합된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미디어 환경 및 이용행태가 휴대폰으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은 북·중 접경지역에서도 쉽게 눈에 띄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정보콘텐츠를 오프라인으로 바꿔 정보 확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특히 오락과 같

은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북한주민들이 열광하는 한국 드라마에 정보를 녹여 넣는 방안을 활용한다면 기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면서 전통적인 방송시청 플랫폼 뿐 아니라 다수의 플랫폼과 기기를 통하여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방송 콘텐츠를 개발해 나간다면 수용이 빠른 장마당세대를 시작으로 남북 간의 정보격차는 현저히 줄어들고 같은 민족끼리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7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References

- [1] S. Yoon, "North Korea Jangmadang generation says 2016 Korea and North Korea," *Mag. Weekly Chosun*, no. 2396, Feb. 2016.
- [2] S. Hwang, Y. Gong, H. Hong and S. Park, "North Korea Broadcasting Communication Division and Inter-Korean Broadcasting Communication Exchange Cooperation Status Report,"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Dec. 2009.
- [3] S. Choi, H. Lee, K. Koo and I. Kwak,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Radio System for Inter-Korean ICT Exchange and Cooperation," *Korea Communication Agency Research Report*, Feb. 2017.
- [4] J. Kim and C. Lee, "Analysis and Cooperation of North Korea's IT Technology for Unification," *J.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Insight'*, vol. 5, no. 142, 2014, pp. 1-23.
- [5] M. Kim, J. Tak, J. Kwak and H. Yoon, "A Study on the Role of Broadcasting for Inter-Korean Integration,"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Research Report*, July. 2014.
- [6] S. Choi, S. Woo, S. Choi and G. Yoo, "A

- Study on the North and South Korea Broadcasting Communications indirect exchange and cooperation,"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Research Report*, Nov. 2013.
- [7] C. Kim, S. Kim, S. Seo and U. Lee, "A Study on the Promotion Plan of Inter-Korea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Exchange and Cooperation Center for Unification,"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Nov. 2015.
- [8] M. Kim and J. Kwak, "The Unification-Oriented Broadcast Policy Searching for a Solution to Overcome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r in 21<sup>st</sup> Network Society," *J. of the Unification and Broadcasting,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2, no. 2, 2012, pp. 1-26.
- [9] W. Park, "A study on the Use Content Film of Internet VOD Service User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2, 2013, pp. 255-261.
- [10] Y. Kang and H. Cho, "Streaming Device & App Development to Transmit & Play without store for Multimedia Contents,"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2, no. 2, 2017, pp. 287-294.
- [11] W. Park, "A Study on Policy for the Introduction of Terrestrial Multi-Channel Service,"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8, no. 12, 2013, pp. 1825-1831.
- [12] J. Park, S. Lee, and W. Oh, "Congestion Control Mechanism for Efficient Network Environment in WMS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0, no. 2, 2015, pp. 289-296.
- [13] J. Kim and C. Lee,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zation Policy and Cooperation Plan for Economic Reconstruction," *J.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Trend & Issue*, vol. 6, no. 32, 2017, pp. 1-26.
- [14] C. Kim, S. Kim, and S. Seo, "A Study on New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ctor,"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Nov. 2014.
- [15] J. Seo and H. Park, "Implementation of Mobile Authentication System for Context-Awareness based on Near Field Communication," *J.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ol. 12, no. 1, 2017, pp. 39-46.

## 저자 소개

### 박은경(Eun-Kyung Park)



1999년 국립 한국철도대학 운전기  
전과 졸업 (전문학사)

2000년 인하대학교 국제통상물류  
대학원 공공물류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2006년 모스크바 국립 철도 대학교 대학원 철도물  
류학과 졸업(공학박사)

1994년 ~ 2014년 한국철도공사 근무

2014년~현재 동양대학교 철도전기융합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북한, 대륙철도 운영시스템